

SUMMARY ESSAY – THEOLOGY SECTION  
T.A. Noble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Kansas City

요약논문 - 조직신학분야 - T. A. Noble, NTS

김성원 역

신학분야에 6 개의 논문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 둘은 교회 사역에 관한 것이고, 둘은 교회론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며, 특히 교회의 교리와 성례전 교리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두 논문은 지구촌 사역에 관한 특별한 주제이다. 이런 주제에 따라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이면서 여럿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언급하고자 한다.

1.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a) Brower Latz: 교회와 도시빈곤

윌리엄템플 추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교회의 회원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도심 교회에서 사역의 경험의 배경을 갖고 있는 D.B. Latz 는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논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웨슬리안 교회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수 십 년 동안 논의했던 것을 재론하고 있다.

o *교회는 영혼 구원에 우선권을 가져야 하나 아니면 사회적 행동을 선교의 불가피한 사명으로 여겨야 하나?*

하지만, 이 논문은 교회의 평신도 구성원들이 고용되어 살고 있는 세상의 현장과 일에 관계된 교회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종종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빈곤의 문제를 다루는 최선의 방식은 부의 창조 속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o *세속경제 고용 시스템에서 교회의 예언자적이고 봉사적인 사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세상의 사업과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할 것인가?*

(b) Stanton: 마음재활을 위한 교회의 역할

앞에 첫 번째 논문이 웨슬리가 “자비사역”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라면, 이 논문은 “경건사역”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성결이나 (다른 말로하면)개인의 영성형성에 관한 차원을 넘어서 교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윌리엄 템플이 언급한 절반진리(half-truth) 이론을 기억하게 한다. 교회는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목회적으로 돌보아야 할 것이다. 스텐톤은 구약성서의 인간론 이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히브리어 lev 는 일반적으로 가슴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혹은 한국어 보다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스텐톤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나의 친구이며 선배인 케네스 그라이더(Kenneth Grider) 박사가 교회의 ‘실천적 필연성’(practical necessity)이라고 부른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성결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치우쳤으며 - 개인적인 성별을 위해서 개인을 고립시키는 문제의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저의 주장은) 나사렛교인의 실천은 (때로는 우리의 설교와는 다르게) 매우 협동적이라는 사실이다. 가족 같은 교회의 사랑친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인 성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질문에 제기될 수 있다:

- o 가족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사렛교회가 성장 하면서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할 것인가?
- o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영성형성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역할을 어떻게 강화 하고 높일 것인가?

## 2.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교회론의 타당성에 접근하고자 한다 - 교회론

(a) Mann and Peterson: 자발적 협동공동체인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마안과 피터슨은 웨슬리안 전통과 특히 나사렛교회 안에 있는 두 개의 상반된 교회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교회론은 나사렛교회의 장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먼저 나사렛교회 신조에 있는 교회론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중생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그 이름은 하늘에 새겨져 있다’(장정, 23)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사렛교회는 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장정, 25). 이 구절들은 1908 년 이후에 계속해서 존재하였으며, 교회는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믿는 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9 년도까지 첨가되지 않았던 교회론의 다른 면이 신조 11 조에 발견되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교회를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과 말씀을 통한 성령에 의해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는다. (장정, 15).

역사적으로 이 두 개의 다른 교회론 즉 개인적으로 믿는 자들의 자발적 공동체로서 교회론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론은 성례전에서 두 가지의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다. 믿는 자들의 교회는 쉽게 믿는 자의 세례론과 재세례파나 침례교회 전통에서 전형적으로 따르고 있는 기념설을 취하게 된다. 기념설이란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저 기념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이 견해는 매우 개인적 성향을 갖고 있다. 낙관적인 견해는 카톨릭 전통의 교회론에 있으며, 단순히 로마 카톨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루터교, 앵글리칸 교회, 개혁교회 전통과 웨슬리안 감리교회 전통에서 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자발적 협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협동공동체로 보는 것이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실천하게 되었다. 성만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설을 따르는 것이며, 로마 미사에서처럼 빵과 포도주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 실재로 현존하는 것이며, - 성만찬은 살아계신 주님과 진정으로 교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안과 피터슨은 후자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웨슬리안 신학자들이 믿고 있는 것이다.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o 어떤 교회론과 성례론을 따라야 하는가, 혹은 두 개를 장점을 종합하는 것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b) David Rainey: 화해, 성만찬과 선교

데이빗 레이니는 오늘날 대부분의 웨슬리안 신학자들의 견해를 다루고 있는데, 앵글리칸 전통에서 내려온 웨슬리의 교회의 협동적 교리의 뿌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이니의 주장은 성만찬에 대해서 웨슬리의 이해는 초창기 고상한 교주들이 참여했던 성만찬 테이블에서 유래하였으며, 웨슬리의 후기 견해는 1738 년 이후에 성만찬은 회심의 성례로 보는 복음주의 선교적 견해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화해의 복음을 활성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며 -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기념설이 아니며: 은혜의 수단인 되는 것이다. 혹은 (은혜를 실제로 보는 아이디어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통합하는 것을 진정으로 활성화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며,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재활성화 하는 것이다. 레이니는 이것이 '선교적' 교회론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성만찬 예배의 핵심에 있는 화해의 개념을 가시적인 활성화 작업으로 시도하였으며, 지난 세기에 예배의 부흥에서 평화를 전하는 부흥으로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다.

성만찬의 핵심이론에 대한 강력한 주장은 나사렛신학자들이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며, 전반적으로 나사렛교회가 가야할 방향으로 여겨진다. 종교개혁 이후에 재세례파의 '평교회'의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을 하였다. 나의 북 아일랜드와 스코트랜드 개신교 배경으로 보면 반카톨릭 전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 대한 항구적인 비난은 성례전에 대한 이해와 의미 그리고 선교의 핵심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o 나사렛교회의 모습과 선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를 활성화하고 구체화하는 성례전 신학을 깊고 풍성하게 재생시켜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 3.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다양할 수 있는가

교회를 정의한다면 -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곳에서든지 나사렛교인들은 모든 친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로 정의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특별한 친교를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독특한 웨슬리안 전통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존하고 축하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 문화적 다양성을 나눌 것인가?

(a) David McEwan: 연결주의

데이빗 맥큐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론의 다른 측면을 다루면서 우리의 주의를 돌리면서 정치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조직되고 구조되는가? 그는 회중제도와 감독제도를 거부하고 감리교회의 연결주의 전통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나사렛교회는 감리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사렛교회를 형성한 성결그룹은 대부분 회중교회에서 왔으며, 그들은 필연적인 선교를 위해서 중앙감독제 형태를 (조금 주저하면서) 수용하였다. 데이빗 맥큐인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는 단순히 조직이나 정치가 아니라, 성삼위일체에 나타난 친교와 상호의존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교회의 기계적인 사업적인 모델을 거부하고,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지배적일 때에

나타나는 갈등과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구촌 가족이 서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열심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o 나사렛교회는 지구촌가족으로서 복합문화에서 복음과 성서적 범주 안에서 서로 경청하고 다양한 문화적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a) Carlos Martin Abejer: 라틴 아메리카의 웨슬리안 교회론

칼로스 마르틴 아베젤은 라틴 아메리카 맥락에서 웨슬리안 신학과 교회론을 살피고 있다. 웨슬리의 교회론은 18 세기 영국의 상황의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문화에서 수용적이며, 그 이유는 웨슬리의 교회론이 신축적이고 수용적이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진정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으며, 초기 삼세기 동안 있었던 교회전통을 존중하였으며, 영국교회의 전통에 서있었지만, 웨슬리는 혁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새로운 기능적 구조를 수용하고 다양화하였다. 아베젤은 이 교회론의 14 가지의 요소들을 설명하고 수용적인 교회론을 제시하였다. 웨슬리 자신에게서 우리는 영국교회와 교부들의 카톨릭 교회론과 결혼한 개인적인 신앙과 성결을 추구하는 경건주의 자를 보는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o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떤 본질적인 교회론이 진정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 속에서 교회의 선교를 위한 실천과 구조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가?